

주현절 / 임직 감사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EPIPHANY SUNDAY

주후 2023년 1월 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2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일 34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07 번 임직식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마태복음(Matthew) 25:14-30</b>	김 현 집사
찬 양 Anthem	“주께 맡기어라”	찬양대
설 교 Sermon	<b>“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주 은혜임을”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안수임직식 Ordination/Installation	(안수/임직 순서지 참조)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214 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 349)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고,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더 앞세웠으며,  
우리를 드러내려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11-12, 골 3:17)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25:21)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 (Matthew 25:21)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8 (주일)	1/9 (월)	1/10 (화)	1/11 (수)	1/12 (목)	1/13 (금)	1/14 (토)
본문	창8	창9,10	창11	창12	창13	창14	창15
	마8	마9	마10	마11	마12	마13	마14
	스8	스9	스10	느1	느2	느3	느4
	행8	행9	행10	행11	행12	행13	행1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1/11 오후7:30)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5:13-21)
토요 새벽기도회 (1/14 오전6:30)	이성우 장로

지난 주일(1/1, 신년 주일) 말씀 – Matthew 25 Church(1)

“그러즉 깨어 있으라”(마태복음 25:1-13)

오늘 본문은 (일명) “열 처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 ‘결혼식에서의 들러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특이한 사실은) 그 중, 다섯은 미련하고 나머지 다섯은 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미련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슬기 있다고 구분한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 모두 다 “졸고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5:5). 그러니까, 단지 “잠이 들었느냐?”의 여부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결론적으로, “그러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1)첫째,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준비하라”는 의미이고, 2)둘째, 이러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3)셋째,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의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The Way)”을 좇아서 따라가는, “길 위를 걷는 사람들(People Walking on the Wa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1)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2)이러한 준비는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며, 또한 3)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담대히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